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를 뽑는 경선이 끝났다. 경선 과정의 격돌들이 경선 후의 후유증으로 이어질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별 잡음이 없다. 오히려 박근혜 前 대표의 패배에 대한 대승적인 대처를 두고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범여권의 대통령이 현실화 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경선은 본선 분위기였다. 그러나 경선은 본선이 될 수 없다. 이제 경선의 판문을 통과한 이명박 前 서울시장은 확실한 후보가 됐다.

연말에 치러질 대선의 한 후보가 됐을 뿐이다. 주변석개하는 정치판에서 지금 이 후보가 밟고 있는 기반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그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 문제들이 아직 미궁 속에 있고 또 어떤 저격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제 대선 후보다. 그의 행동 하나 하나가 대단한 관심을 끌 것이다. 분위이상 그의 말이 차기 정권의 정책기조로 들릴 수도 있고 그의 행동이 표심을 움직이는 힘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후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후보’라는 말에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 거기 숨겨진 의미들은 긍정적 측면이건 부정적 측면이건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예를 들어 ‘확실하게 당선될 후보’라는 측면이라면 그를 예비 대통령으로 인식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반대로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



불자 세상보기

법혜
한민족평화포럼 상임의장

이명박 후보와 불교계의 관계 정립

‘보’란 측면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별 매력을 느끼지 않고 그저 판이 끝난 뒤 그의 거취 정도에나 관심 가질 것이다.

이 후보는 지금 불교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서울시 불현 발인’ 등으로 불교계와 적지는 사이가 된 뒤 그가 불교계에 들인 공은 참으로 대단했다. 주요 직책을 맡은 여러 종단의 스님들은 일일이 한 두 번씩 찾아가 만났고 불교계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의 ‘발인’들에 대해 해명도 했다. 일찌감치 불교 대책 캠프를 가동하며 불교계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이런 공력이 이번 경선에 어떤 특으로 작용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적지 않은 힘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불교계에 대한 이 후보의 시각은 좀 더 교정되고 분명해져야 할 것이다.

불자들은 다종교인들의 편향적이고 무례에 가까운 배타성을 잘 알고 있다. 이 후보가 향후 후보의 길을 걷는 와중에 종교적인 갈등이 새로 생기기 않으리란 확신도 없다.

이제 이 후보는 후보라는 자리에서 불교계를 볼 것이다. 그 바라보는 공간에 ‘공약’이 있다. 후보로서의 약속이란 것이 얼마나 신뢰성을 갖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후보가 불교계를 향해 쏟아 놓을 공약은 불교계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므로

불교계를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허망한 공약이 급조되고 불심을 흠트리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과거의 ‘발인’을 의식할 것이다. 그것이 불가피한 현실이고 보면, 과거 때문에 지나치게 포장된 공약을 내놓을 여지도 없지 않다. 불자들은 그럴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불교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바꿔주겠다는 분명하고 진실한 공약을 바랄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후보 측의 불교대책 캠프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겉이 화려하다고 속을 볼지는 없다. 이제 대부분의 불자들이 내실을 보는 혜안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일이다.

이 후보를 상당히 가능성 있는 후보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정치판의 대선정국이 어떻게 흐르건 이 후보는 대선의 중심에 서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입장에서 불교계 일각에서도 이 후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새로 조리를 맞추려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선이 끝난 시점에서 대선 정국이 곧바로 시작된 느낌이다. 불교계와 이 후보의 관계 정립이 어떻게 형성되어 나갈지 열쇠는 이 후보와 불교계가 반반씩 나눠가지고 있지만 이 후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불교계의 쓰임도 달라질 것이다.

불자의 눈

동국대 학력 경력 검증 제대로

학력 속이는 사회. 교육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해서는 안 된다. 신장아씨의 가짜 학위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가짜 학력’이라는 초유의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어 떠나 할 것 없이 신음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존경 받았던 인사, 유명 교수, 인기 연예인이 졸졸이 학력 허위를 고백하거나 의혹에 휩싸였다. 심지어 대규모 도심 포교당 성공신화를 낳았던 스님마저도 학력 위조 바이러스 보균자임이 드러나며 모든 불자들이 ‘가짜’와 ‘위조’ 사이에서 살고 있다.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동국대였다. 신장아씨의 가짜 학력이 지난 수십 년 간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던 ‘비양심’의 뿌리들을 들춰내는 계기가 됐다. 물론 이 사건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온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다.

동국대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학교 교직원 전원의 학력과 경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신장아씨 사건으로 세상에 망신을 툴뜰 당한 동국대이고 보면 이 같은 결정이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총장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 교직원의 학력과 경력을 검증한다는 계획은 그나마 학교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검증을 얼마나 제대로 하여 학내의 청정도를 환기시키느냐 하는데 있다. 동국대는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방향 그리고 결과들을 한 치의 숨김 없이 공개하고 검증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덮어주거나 축소 조작 등 ‘두 번째 회살’을 맞아야 할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찰·종단의 재정 투명화 조건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일 년간의 살림살이 규모와 내역을 공개했다. 종교계가 회계감사자료를 공개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종교계는 성역이라는 인식으로 재정의 사용처 등을 밝히는데 긍정적이지 못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종교계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어 온 터에 이번 가톨릭 서울대교구의 회계감사 결과 공개는 많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 종교단체의 회계감사 결과 공개는 신도들에 대한 의무의 일환으로 보는 측도 있고 이 일을 과세의 기능성으로 묶어 가려는 측도 있다.

그러나 이런 논쟁에 앞서 불교계 현실은 어떤가? 사찰재정의 투명화는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다. 그렇지만 재정 투명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현재의 회계 시스템 점검을 하거나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여전히 형식에 가까운 종단 자체 회계감사로 투명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시스템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이므로 언제든지 보완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 투명화와 관련, 불교계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다. 스님과 신도들의 의지가 앞서지 않으면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다. 거기에 종단 차원의 제도가 뒷받침 되고 철저한 검증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찰과 종단의 재정 투명화는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불교계 자체의 도덕성과 청정성을 회복하는 자기구제의 사명임을 명심하자.

‘종교자유’ 칼럼

26. 문봉주 뉴욕 총영사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공직자 신분으로 교민 대상 기독교 강좌 개최 ‘물의’

2004년 이명박 서울시장, 정장식 포항시장에 이어 2005년 초에는 뉴욕의 문봉주 총영사가 공개적으로 기독교 강좌를 열어 공직자 신분에서 다시 생각하게끔 했던 기억이 새롭다.

한국의 온누리교회 장로인 문 총영사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물론 중국·뉴질랜드·워싱턴 DC 등 해외 근무지마다 기독교 강좌를 열어 굵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뉴욕교포들을 상대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고 8달여의 수강료까지 받으며 2005년 1월 23일부터 8개월 동안 매주 ‘성경의 맥을 잡아라’란 주제로 공개강의를 하기로 해 물의를 빚은 것이다.

게다가 그는 부임 후 직원 개개인의 종교를 직접 묻고 매주 수요일 근무 시간 중인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영사관 대회의실에서 개신교인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 상식 밖의 행동이다. 일부 직원들에게 심적 부담을 준 것도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의 종교적 선택과 양심에 관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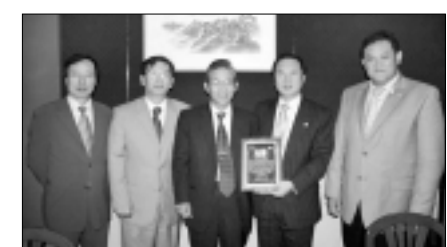
당시 교포사회와 불교계는 모든 교포들의 화합을 도모해야 할 총영사의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처신’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 교포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손엔 총영사 신분을 내세우며 개신교 전도에 나서고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뉴욕의 불교단체들도 “동포 사회에 분열을 조장할 수 있으니, 공인으로서 중립을 지켜 특정종교를 부각시키는 일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천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 갈 길을 가겠다”며 정면으로 거부사를 밝혀 문제가 더욱 확대되었다.

2월 중순, 어정정한 대응은 면치부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 국내외 불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외교통상부에 ‘문봉주 뉴욕 총영사의 정교분리 침해에 대한 대정부 질의서’를 보내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총영사 직함으로 언론에 광고를 내 특정종교 강좌 개설’, ‘공무시간에 공공기관인 영사관 회의실에서의 종교행위’, ‘부하직원의 종교를 확인하고 소외시킨 인권 침해’, 기타 국가공무원법 상 ‘직무전념의무’의 손상 등에 관해 집요하게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2월 27일 열린 5번째 강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강의를 중단하면서 문 총영사는 ‘개인의 신앙심 차원의 문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



문봉주 뉴욕총영사(왼쪽에서 세번째)가 8월 16일 뉴욕한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각했다. 뉴욕과 뉴저지 45만 동포를 깨안아야 할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타 종교인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사과한다. 자신의 어깨보다는 공직자의 어깨가 훨씬 무거움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 ‘공직’이 무엇인지 세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은 그나마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공직’이란 공개적일 때는 더 이상 개인일 수 없다. 총영사 역시 교민들에게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특수한 위치이다. 공식 직한 자체에 항상 권력이 따라다니므로 움직이는 국가권력이라고 보는 게 옳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문 총영사는 “자신의 성경강좌를 통해 불교계가 입은 피해가 뭐냐. 성경강좌에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오히려 항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인의 개금불상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대창빌딩 1층

하늘의 소리 소리 I·II·III권

성서(聖書)의 Word(말씀) <수능엄경>의 관음법문

요가 대수행자의 마지막 수행처 선가(仙家)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상단전의 비밀' 오늘, 그 비기(秘記)를 공개한다.

'무소의 뿔처럼' '백척간무에 진일보' 보다 먼저 바로 볼 수 있는 정견(正見)을 가져야 한다.

즉각 깨닫는 길

“좋은 분들에게 선물, 감동을 주는 책”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0,000원

신 주학 핵심비결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한국인의 신 수필가 글로벌작명학의 디자인

신국판/양장본/소형/50,000원 신국판/양장본/벽면본/50,000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신국판/양장본/박수현 지음/2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평호)